- 1. 「문화유산 헌장」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① 문화유산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 - ②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래 되어서는 안 된다.
 - ③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.
 - ④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하여야 한다.
- 2. <보기>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의 정의이다.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?

一く보기〉一

"문화재"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(⑦)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(⑥)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, 기념물, 민속문화재를 말한다.

 \bigcirc

<u></u> 국제적 ② 국제적 세계적

(L)

③ 국제적 문화적

① 세계적

④ 세계적 경관적

- 3. 문화재보호제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우리나라 문화재보호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중점보호주의
- ② 대장주의
- ③ 문화재지정제
- ④ 문화재등록제
- 4.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 장수에 의해 세워진 관우사당이 후대에 관왕묘란 이름으로 서울 여러 곳에 세워졌는데, 현재까지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은?
 - ① 동관왕묘
- ② 서관왕묘
- ③ 남관왕묘
- ④ 북관왕묘
- 5. 「문화재보호법」상 문화재보호정책의 수립,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 - ① 문화재청장은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3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·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.

- 6. 문화재 관련 법령상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의 지정해제,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국가지정문화재나 시·도지정문화재가 가치를 상실 했을 때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승 기량을 유지하고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을 성실히 한 이상, 다른 이유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없다.
 - ③ 국가무형문화재와 시·도무형문화재는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때도 지정 해제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도 지정 해제해야 한다.
- 7. 문화재 관련 법령상 문화재 공개와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·관리와 함께 활용을 위해서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.
 - ② 국가지정문화재나 시·도지정문화재의 공개 여부는 그 소유자가 결정한다.
 - ③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는 '생생 문화재', '문화재 야행' 등은 문화재 활용 사업에 해당한다.
 - ④ 국가무형문화재와 시·도무형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.
- 8. 문화재 관련 법령상 문화재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 - ① 국가무형문화재와 시·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·명예 보유자를 인간문화재라고 부르기도 하나, 이는 법적 명칭이 아니다.
 - ②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 문화재 유형에 관계없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이를 중복해서 시·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.
 - ④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.
- 9.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상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을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
 -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서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
 -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서 나무를 심거나 제초작업 등을 하는 행위
 -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서 각종 시설물을 신축·증축하는 행위

- 10. 문화재 관련 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와 시·도지정 문화재의 정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 - ① 문화재 정기조사는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, 연구기관, 박물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재의 현상이나 관리 실태 등을 사실대로 확인 하기 위해 그 소유자나 관리자, 관리단체 등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한다.
 - ③ 문화재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, 그 결과가 문화재나 보호물,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 - ④ 무형문화재는 사람에 의해 전승되는 것으로, 정기조사 대상이 아니다.
- 11. 「문화재보호법」상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,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 - ①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.
 - ②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는 반출금지 예외사항이다.
 - ③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④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12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상 매장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①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
 - ② 건조물 등에 포장(包藏)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
 - ③ 동식물 속에 내장(內藏)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
 - ④ 지표·지중·수중(바다·호수·하천을 포함한다) 등에 생성·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·화석,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
- 13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 보존조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① 현지보존
- ② 이전보존
- ③ 축소모형보존
- ④ 기록보존

- 14. 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상 문화 유산국민신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관리하는 문화유산은 법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 - ②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유산을 매입·보전·관리하기 위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 할 수 있다.
 - ③ 문화유산국민신탁 제도는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·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.
 - ④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재산 중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것을 '보전재산'이라고 하며, 이는 매각·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다.
- 15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상 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승자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 - ① 국가무형문화재나 시·도무형문화재 보유자만 명예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.
 - ② 국가무형문화재나 시·도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는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.
 - ③ 국가무형문화재나 시·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그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하나, 복수로 인정할 수는 없다.
 - ④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 또는 시·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이북5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.
- 16.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상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혹은 유형이 아닌 것은?
 - ① 문화예술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
 - ②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
 - ③ 학교문화재교육
 - ④ 사회문화재교육
- 17. 우리나라 유네스코 등재유산 중 세계유산, 인류무형 문화유산, 세계기록유산 순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?
 - ① 종묘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강릉단오제
 - ② 남한산성 처용무 훈민정음(해례본)
 - ③ 창덕궁 하회별신굿 탈놀이 해인사대장경판 및 제경판
 - ④ 대목장 아리랑 동의보감

- 18.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상 화재 및 재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- ①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류, 석조건축물류, 분묘 및 조적조·콘크리트조 건축물류
 - ②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. 다만, 화장실,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.
 - ③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. 다만, 화장실, 휴게 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.
 - ④ 세계중요농업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, 석조건축물, 분묘 및 조적조·콘크리트조 건축물. 다만, 화장실,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.
- 19. 문화재보호법령상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국가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은 외관 면적의 1/4 범위 안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디자인, 색채, 재질, 재료 등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등록문화재와 시·도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,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④ 문화재를 지정·해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록·말소할 때도 해당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20. 조선 5대 궁궐의 정전으로서 현재까지 원 위치에 자리하지 못하고 한 사립학원의 교내 법당으로 쓰이면서 정각원 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건물은?
 - ① 경희궁 숭정전
 - ② 경복궁 근정전
 - ③ 창덕궁 인정전
 - ④ 창경궁 명정전

이 면은 여백입니다.